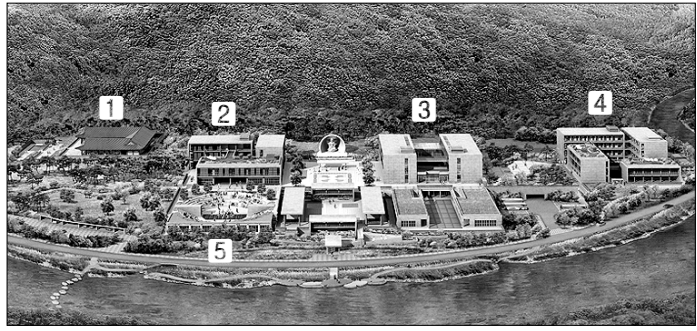


전통불교 문화산업 지원센터 2006년 11월 완공

‘불교예술인연합회’ 발족한다

244억 투입... 대지 9천평, 4동 건물 4천여 평 조성

전통불교문화 대중화와 창조적 계승을 담당할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건립 세부계획이 확정됐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5번지 일대에 건립될 지원센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국고 122억원, 자부담 122억원 등 총 24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대지 9천여 평에 4동의 건물 4천여 평으로 조성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고, 이하 문화사업단)은 12월 16일 지원센터 기본설계 심사과정 및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5번지 일대에 건립될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조감도. ① 국제간화선센터 ② 연구동 ③ 강의·교육동 ④ 숙박동 ⑤ 야외공연장

△지원센터 어떻게 꾸며지나?
지원센터는 크게 △교육 및 연구 시설 △국제간화선 체험센터 등 전통불교 수련시설 △연구시설 △공공연시실 △불교문화 정보화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꾸며진다. 여기에서는 조계종 스님 및 신도, 불교단체, 문화예술단체들의 교육과 연수를 개발·유지하게 된다. 또 무형

의 유산을 문화산업으로 개발하고, 불교문화 정보화 사업을 담당할 뿐 아니라, 각종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문화사업단장 현고 스님은 지원센터 건립 기대효과를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예로 들었다. 현고 스님이 따르면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발간된 이 책으로 인해 문화

유산에 대한 국민의 수준이 한 단계 상승했다는 것이다.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무형의 유산 즉 선수행은 집단활동이나 직무항상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되고, 발우공양 등은 환경친화적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화 될 뿐 아니라 유행의 문화제는 복제화 또는 이미지 제표화돼 실생활과 맞닿은 불교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간화선 중심의 한국불교 대중화 세계화가 가능해져 불교의 대중적 인식

의 변화를 이끌어 낼 주동력으로 운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지원센터는 ‘자립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각종 수익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운영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12월 22일 오후 2시 마곡사 현장에서 봉행될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2005년 1-5월 건축 기본·실시 설계, 6-8월 입찰 및 시공사 선정, 8월 건축허가, 9-10월 도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을 거쳐 2006년 11월 준공 및 개관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앙승가대 부설시공 전력이 있는 삼풍엔지니어링이 설계 용역계약 대상업체로 선정돼 개운치 않은 여론을 낳았다. 또 최종 선정 당시 신규조화 부분에서 정제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불교계가 추진했던 불사들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전례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100여명 참여...전국투어로 포교 앞장

불자연예인들이 사단법인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Buddhism artist Korea, 이하 예술인연합회)를 발족한다.

불자가수 장미화씨와 (주)해심원 이선용 대표이사는 12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각 종단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불교 포교 활성화를 위해 예술인연합회를 결성할 계획”이라며 사단법인 설립 목표와 취지를 설명했다. 또 법장 스님에게 예술인연합회 총재직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다.

법장 스님은 총재직을 수락하며 “불자예술인 뿐 아니라 불자체육인도 예술인연합회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당부했

다. 법장 스님은 또 함께 배석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에게 “2005년 1월 15일에 열린 종단협 이사회에 이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예술인연합회 지원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술인연합회는 법장 스님을 총재로, 홍파 스님을 비롯한 4개 종단 총무원장 스님들을 부총재로 추대할 예정이다. 회장엔 장미화씨, 불자가 그랜 김병조씨를 부회장으로 하며, 지역별로 각 지부를 둘 계획이다.

이미 인천(회장 이배원)과 대전(회장 이종경)지부가 결성됐으며, 불자가수 김범용·김태곤·머무와 대령·엄정화씨를 비롯해 연화육법공양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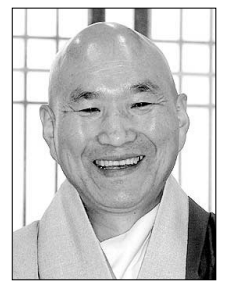
다. 이번달 내 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6년 1월 경 홈페이지(www.buddhismkorea.com)도 개통할 예정이다. 예술인연합회는 내년 종단협 신년하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신년하례회 때 각 종단들의 동참과 지원을 얻어낸 다음 신년사에 발표와 국내·외 공연, 자선바자회 등을 개최한다. 특히 내년 3월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전국 투어를 진행해 ‘포교바람돌이’도 준비하고 있다.

이선용 대표이사는 “1991년 불교방송이 개국할 때 타종교 방송국에서 두려워 할 만큼 정취율이 높았지만 현재 불교방송 불교TV 청취율 및 시청률이 모두 저조하다”며 “이러한 때 예술인연합회를 발족해 그때의 불심을 다시 일깨울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시대가 요구하는 본사 기능할 것”

인터뷰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직지사는 1600여년 동안 한국 불교의 상징적 사찰이었습니다. 최근 원적한 관음 스님을 비롯해 여러 큰스님들께서 수행 교육 포교 복지에 큰 힘을 그어온 도량입니다. 어른들의 뜻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조심스럽습니다.”

12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은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사진)은 수행자의 초발심으로 승가를 의뢰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본사로서의 기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웅 스님은 또 “말 보다 실천을 중시하며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겠다”며 “단 시간 내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웅 스님은 “본사 주지는 교구 본사로서의 안목과 종단적 안목을 두루 견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스님들의 뜻을 모을 것”이라며 “요익중생(饒益衆生)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웅 스님은 70년 사미계, 71년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중앙대 법학과,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75년부터 상주 남장사 주지를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불자 무료변론해 승소



조계종 법률전문위원인 한 불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무료변론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그 주인공은 조계종 법률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봉석 변호사(31·법명 광범·사진).

김 변호사가 억울한 사연을 들은 것은 지난 3월. 이복상(47·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남마을)씨가 형수인 故 권오남씨를 의사(義死者)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한 뒤였다.

권오남씨가 사망한 것은 2002년 5월 1일 마산시 석전2동 마도장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때문이었다. 당시 권씨는 여관에서 한달에 50만원 정도 받는 청소원이었지만 화재가 발생하자 투숙객들

의 방문을 일일이 두드리고 다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몸을 피하지 못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이제는 즉시 복지부에 형수들의 사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장자심사위원회 결정은 ‘불인정’. 이어 행정심판과 1심에서도 패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때부터 무료변론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12월 10일 서울고법은 “권씨는 주로 청소를 하면서 여관 관리 보조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투숙객을 대피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상고 여부가 아직 관건으로 남아있다. 김변호사는 “고인의 의로운 행동이 법리적 다름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정도회 4차 천일결사 회향 ‘일과 수행의 공음제’ 정도회가 2002년 3월부터 실천해온 제4차 천일결사 회향식을 12월 12일 문경 정도수원원에서 개최했다. 서울 대교 해운대 동대 등 전국 정도법당에서 모인 700여 정도행자들은 지도법사 범룡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천일간 진행했던 북한·인도·파키스탄 등기, 쓰레기제로 운동 등을 점검했다. 강유신 기자

미얀마서 세계불교대회

제4차 세계불교대회가 40여 개 불교국가 대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8-11일 미얀마 양곤 등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열반종 김해근 총무원장 등 한국 대표들은 9일부터 3일간 열린 불교화 관련 세미나를 참관했다. 특히 열반종은 ‘세계평화의 종’과 불상을 조성, 양



곤 세다곤 파고다에 기증하고 8일 타종식과 점안식(사진)을 봉행했다. 이화 웅인대학 이사장은 6일 양곤 국립 불교대학과 한·미얀마 불교대학간 교류 협정도 체결했다. 강유신 기자

도릉농소송 서명운동 참여인원 40만명 돌파

천성산의 도릉농과 뭇 생명을 살리자는 ‘도릉농소송’ 서명운동 동참 인원이 40만 명을 돌파했다.

도릉농소송시민행동은 12월 13일 “오늘까지 천성산 살리기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40,342명을 돌파했다”며 “100만 명을 목표로 앞으로 계속 서명운동을 전개해, 천성산 문제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천성산 살리기 서명운동은 그동

안 도릉농소송시민행동과 도릉농의 친구들 회원들을 주축으로 전개됐다. 특히 지난 6-8월 진행된 지을 스님의 청와대 앞 단식정진을 계기로 자발적 서명동참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강유신 기자

조계종 해외사찰 174곳 LA·뉴욕 61곳...美에 편중

조계종 사찰 중 해외 소재 사찰은 총 174개이며 그중 북미에 위치한 사찰이 128개라고 한국종교문화연구원수가 12월 15일 배포한 자료에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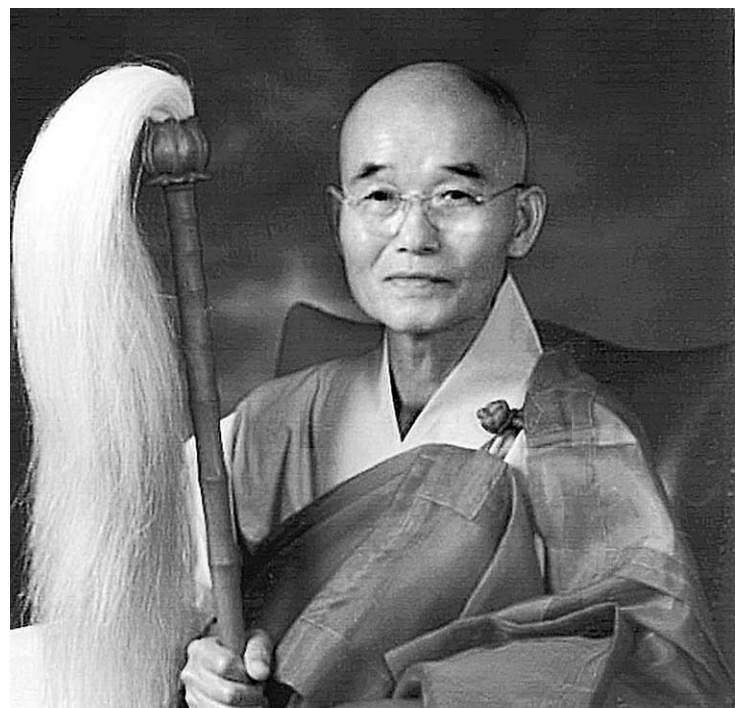
그중 미국 LA와 뉴욕에만 61개 사찰이 위치해 사찰 분포가 지나친 편중돼 있음이 드러났다. 다음으로 아시아 27개, 유럽과 오세아니아 7개, 남미 5개 순으로 사찰들이 활동 중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종교문화연구소가 문화관광부 종무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월 말까지 작성한 것으로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의 활동상황을 정리했다. 개신교는 170여 개국 1만 2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천주교 60개국 554명, 원불교 91명 성직자들이 활동 중이다.

강유신 기자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3주기 추모법회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3주기를 맞이하여 법보종찰 해인총림에서 법전 중정예하를 모시고 추모법회를 봉행코자 하오니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문도 및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48(2004)년 12월 28일(화요일) (음 11월 17일) 오전 10시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큰법당)
■문의처 : 해인사 종무소 ☎ 055)934-3000
원 당 암 ☎ 055)932-7308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증 명 : 종정 법전
봉행위원장 : 주지 현 응
문도 대표 : 성 법